

반드시 결산해야 할 천년속적의 죄악

1919년 1월 21일, 조선봉건국가의 대표자였던 고종황제가 일제에 의해 독살당하였다.

1905년 《을사5조약》날조를 완강히 반대하였고 강탈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해 1907년에는 헤그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고종을 강제제위시킨 일제는 사실상 그를 덕수궁에 감금하다시피 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비법적이

고 강도적인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해 1919년 1월 《조선사람들이 자원적으로 나라를 병합했다》는 문서를 조작하고는 고종에게 옥새를 찍을 것을 강박하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황제의 자리마저 빼앗긴 고종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일제는 헤그로 밀사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저들의 조선강점의 비법성과 10년간의 학정 이 폭로될까 두려워 친일주

구들을 내세워 고종을 독살하는 극악한 범죄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일제가 저들의 범죄를 흑막 속에 덮어두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였는가 하는 것은 고종에게 옥새를 찍을 것을 가져갔던 2명의 궁녀를 암살한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더우기 일제는 고종의 독살음모가 우리 민족을 비롯한 해내외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사망원인과 날자까지

날조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마련이다.

1921년 중국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가 작성 발표한 《제2차 독립선언서》와 고종 황제의 서자인 의친왕의 친서에 의해 고종의 사망원인이 명백히 밝혀졌다.

거기에는 《고종이 죽은 직후에 그의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많이 나타나 있었다. 민영기, 홍궁섭 두 사람이 시신을 검진했을 때에도

온몸에 붉은 반점과 함께 미란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독살이라고 주장하자 일제가 그들을 잡아 가두었다.》라는 내용이 씌여 있었다.

한편 1927년에 출판된 도서 《리왕궁비사》와 일본에서 1965년에 출판된 도서 《하라 다카시일기》, 2007년에 의한 사망으로 감싸고 우리 일인의 반일감정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일제가 저지른 치명적인 반인륜적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도, 숨길 수도 없다.

일제는 1919년 1월 23일부

《조선총독부판보》에 고종이 1월 21일 뇌출혈로 중태에 빠졌다가 1월 22일에 사망하였다고 날자를 속여서 발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장애로 되는 고종을 암암리에 독살한 저들의 범죄를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감싸고 우리 일인의 반일감정을 무마시키려 하였다.

일제가 저지른 치명적인 반인륜적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 수도, 숨길 수도 없다.

김재석

법은 고양이파에서 제일 큰 맹수로서 호랑이, 갈بع이라고도 부른다.

법은 여러 아종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조선법은 크고 날쌔며 용맹스럽고 털가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마의 《임금왕》자무늬는 《뜻깊은 의왕》인 조선법의 위풍과 당당함을 한껏 돋구어준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힘과 용맹을 겸비한 조선법을 령험한 동물로 사랑하고 내세웠으며 날카로운 기성과 무상의 위용을 민족정신에 구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법과 관련된 전설과 설화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바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조선건국설화는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정신을 말살하고 반일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조선사람들이 자랑하고 긍지여겼던 조선법에 대한 대대적인 사냥범죄를 감행하였다.

일제는 이른바 《해수구제》를 명목으로 1915~1916년 사이에만도 수백마리의 조선법과 100여마리의 표범, 수백마리의 곰 등을 사냥했다.

일제총독부는 1917년에는 《조선호랑이사냥행사》라는 것을 벌려놓고 사냥단의 이름도 《정호군》으로 달았으며 《정호군》이라는 것까지 지어부르며 조선법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였다.

임진왜란시기 조선침략의 선봉에 섰던 가토 가요마사를 내세우며 올리는 조선호랑이를 모두 사냥하고 레닌에는 로씨야의 곰을 사냥하겠다는 《정호군》의 가사내용과 도표의 테이그호출에서 열린 호랑이고기시식회라는데 현직대신을 비롯한 200여명의 고관대작들이 총출동했다는 사실 등은 일제가 조선법사냥을 어떤 목적으로 벌려놓았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일제의 무차별적인 조선법사냥으로 1919~1924년사이의 6년간에도 호랑이와 표범 수백마리가 매죽음을 당하였으며 이중에는 대단히 큰 호랑이도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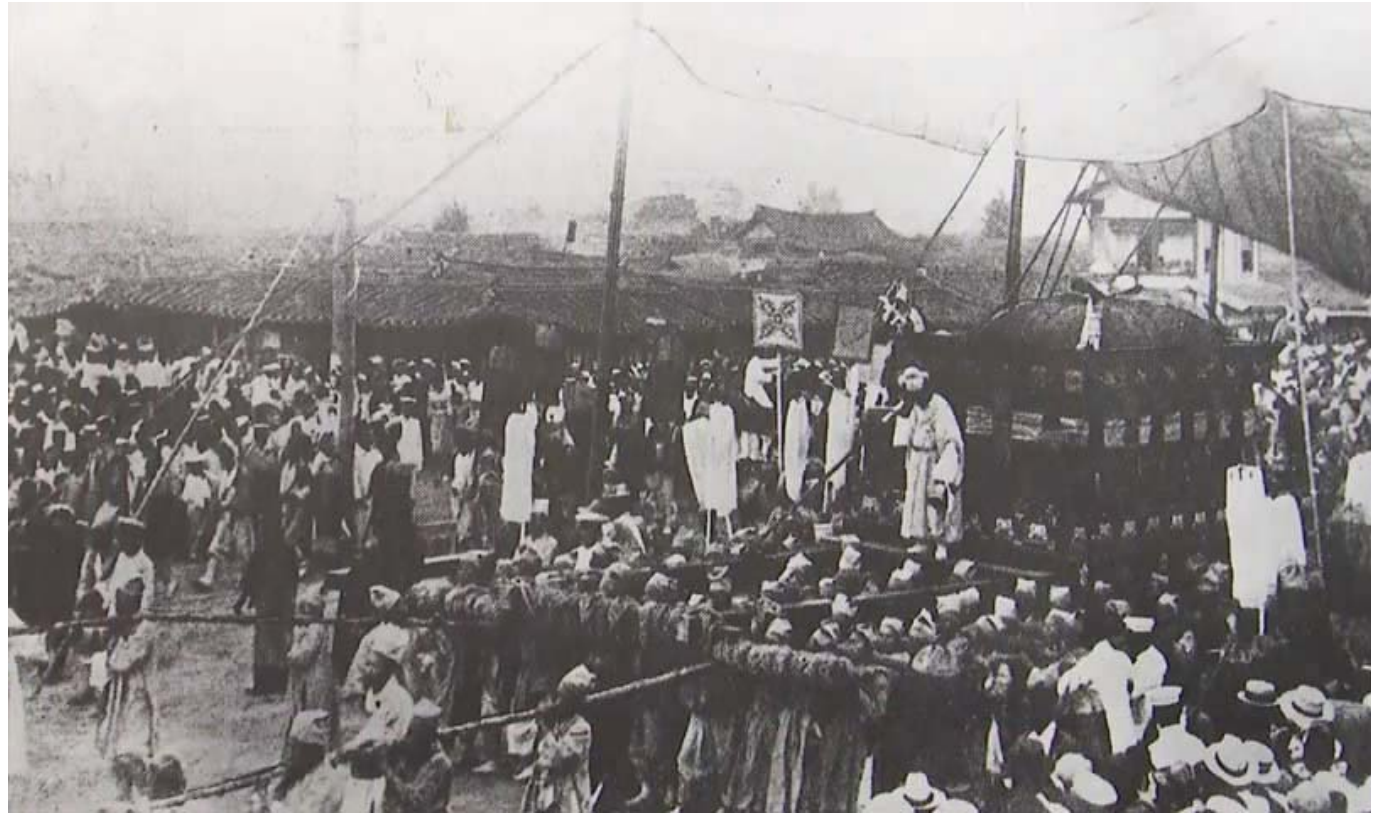
결국 일제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 호랑이는 거의 사멸되다시피 되었다.

참으로 조선을 강점하였던 일본침략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그 악랄성과 야수성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력사에 류례없는 악랄한 식민지통치로 천추만대에 씻을수 없는 특대형범죄들을 감행하고도 사회와 배상은커녕 간교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 제침야욕을 추구하는 일본의 책동은 과거죄악을 천백배로 결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분노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고있다.

력사학자 김선규

조선법사냥행위 - 가토 가요마사의 범죄



3. 1 인민봉기의 발화점으로 된 고종황제의 장례식



고종황제의 사망사실을 외곡한 자료

위기모면을 위한 생색내기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년초부터 《경제파탄정부》의 오명을 벗어보려고 모지모지를 쓰고있는 당국의 처사를 두고 위기모면을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당국이 최근 2년간 경제분야에서 거둔 《성과》에 대하여 자화자찬하는 한편 경제악화로 인한 민심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부동산문제해결과 소비품 가격인하, 일자리마련 등 경제조치들과 정책들을 탐발하고있지만 올해 경제전망은 여전히 암울하다고 분석하고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당국의 재정확대정책은 물가상승을 더욱 부추기여 소비가 감소되고 소비와 투자가 위축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한편 남조

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남조선경제의 불확실성에 불안을 느낀 외국투자자들이 대대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주시가격 등이 폭락하면 금융체계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세계적인 원자재가격 폭등, 수입규제강화로 수출환경이 보다 악화될 가능성도 높아 반도체, 석유화학, 전기제품을 비롯한 주요품종수출 역시 크게 감소되고 2022년 전체 수출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2~3%나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당국이 저들의 《경제성과》만을 광고하면서 《위기극복정부》가 되겠다고 하지만 《경제파탄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광혁



《집은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아영은 기사에 라벨된 30대의 사례들이 무척 낯설었다. 끌어모으면 아파트를 살수 있는 평흔은 대체 어떤 평흔일까. 나는 평흔마저도 실속이 없네. 웃음이 나왔는데 솔직히 웃기지는 않았다.》(《서영동이이야기》)

(수도 없이 이사를 다니며 얻은 결론은 한가지, 집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이들에게 희망이란 집과 같은 뜻이었다.)(원미동사람들)

1987년의 원미동과 2022년의 서영동, 그리고 1978년의 행복동까지 작가들은 가상의 동네에서 집때문에 울고웃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썼다. 집은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동네가 재개발돼 《쫓겨난 사람들》이 되기도, 《내 집》을 마련해 계층이동의 사

다리에 올라가기도 했다. 40여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도 부동산을 둘러싼 욕망, 이를 부추기는 사회분위기는 그대로다. 소설안에서나, 밖에서나.

도시민민이 모여살아 가마니촌, 무허가판자촌으로 불리던 서울 동작구 사당동은 1980년대후반 도시재개발사업이후 대규모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중산층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임대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흩어졌다. 1980년대 사당동에 거주했던 13명을 찾아 30~40년간 이주경로와 주거형태 등을 실층 인터뷰했다. 도시, 주택소유주와 세입자의 계층이동이 뚜렷하게 달랐다. 개발된 것은 개인사이에서도 불균등하게 배분됐다. 재개발당시 《내 집마련》이라는 줄

은 문을 쉽게 통과한이들은 중산층이 된 반면 사당동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난 세입자들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한중사회에서 집은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위치를 가늠하는 표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들은 중산층이 된 반면 사당동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난 세입자들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한중사회에서 집은 단순히 주거공간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위치를 가늠하는 표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



정치시정배들의 《밥그릇싸움》

남조선의 《뉴스1》을 비롯한 언론들이 《국민의힘》내부에서 당권을 위한 치열한 암투가 지속되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백의종군》을 표명했던 홍준표가 얼마전 윤석열을 만난 자리에서 그를 돕는 대신 앞으로 있게 될 보철선거와 지방자치선거들에서 자신이 추천한 인물을 검토해

볼것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그 회담내용이 주시외부에 알려지고 《국민의힘》내부에서 《누가 봐도 이진 거대로 생각할수밖에 없다.》, 《구태정치이다.》라는 비난이 비발치자 홍준표는 《최악의 대선구노》에 나만 진퇴양난에 빠진 노예이다.》, 《윤석열(윤석열의 핵심관계자들)에게 실제로

당해보니 참 융용한 사람들이다.》, 《차라리 출당시켜달라. 같길은 면대 남은 저물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보수층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홍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공작한다.》, 《홍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공작한다.》, 《홍준표를 정치적으로 죽이려 공작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패거리들에게 반기를

들고있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홍준표와 유승민도 모두 꺾을 했다.》는 김진회의 특목특이 공개된 윤석열패거리들은 때를 만나 《홍의힘》이 빨간색 속옷까지 입고 다녔다. 미신이 의존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가.》 등으로 홍준표를 로골적으로 야유조소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국민의힘》내부의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놓고 《하나의 팀》을 구성하였던 《국민의힘》의 정치선언이 폄하될이 되었다고 평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도 《정쟁밖에 모르는 정치권》, 《《국민의힘》 집안싸움에 신물이 나 지경이다.》, 《권력다툼에 혈안이 되어 《밥그릇싸움》이나 벌리고있으니 이는 실망을 넘어 심판받을 일이다.》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들을 비난하고있다.

본사기자

미신에 빠져 허우적이는 얼간이

남조선정치인들이 선거기간 미신행위를 하는것은 고질적인 봉건적관습의 표현이다.

반대파들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남조선에서는 유럽에서 수백년전에 없어진 원시적인 종교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윤석열이 순바닥에 《王》자를 써가지고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후보선출을 위한 헌팅 외신들의 조소와 비난이다.

당시 남조선 각계에서도 《박근혜를 떠나서 청와대에 서 곳을 했다.》는 최순실을 보에게 주는 청호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전씨와 가까운 사람의 증언도 나왔다. ... 선거대책본부내에서는 전씨가 윤후보의 매제지와 일 정, 인사에 관여하는 등 선 대본부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이

최근에도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과 일가족속들이 한갓 무속인(점을 치는 무당이나 점쟁이)의 비과학적인 조언에 따라 사생활은 물론 공적인 업무를 진행한 사실들을 련이어 폭로하고있다.

남조선언론 《세계일보》는 윤석열의 선거대책본부산하에 점쟁이가 《고분》으로 활동하고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전씨는 정계와 재계에서 《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전씨가 윤후보의 검찰총장시절부터 대권도전을 꾀심하도록 도했다는 주장과 함께 자신은 《구사》(봉진시기 왕의 자문역할을 하는 고승에게 주는 청호)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전씨와 가까운 사람의 증언도 나왔다. ... 선거대책본부내에서는 전씨가 윤후보의 매제지와 일 정, 인사에 관여하는 등 선 대본부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리도 나온다.》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이

검사생활은 물론 《대통령》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점쟁이들에게 의존하는 비과학적행위를 일삼게 된다는 그의 처가족속들의 영향이 큰 작용을 하였기때문이라고 분석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윤석열의 장모는 오래전부터 미신에 빠져 여러명의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며 점을 치고 관상을 보는것을 평강히 좋아하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윤석열의 처 김건희 역시 중학교때부터 미신에 의존하여 생활해 왔다고 한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정치인들이 점쟁이들과 얽힌 일화들이 많았지만 윤석열처럼 점쟁이에게 완전히 휘둘린 전례는 거의나 없다고 하면서 위협천만길 의사결정을 점쟁이에게 맡긴 윤석열에게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본사기자 주광일

《신뢰할만한 인물이 없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7시간특취》이 사회적문건거리로 된 데 이어 윤석열과 그 처가의 미신행위가 지경을 넘어 외신들의 조소거리가 되자 미

신에 빠진 후보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수 없다고 집중공격을 하고있다고 한다.

더우기 얼마전 윤석열이 과거 검사노릇을 하면서 한 건실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먹고 부정부패행위를 눈감아주었다는 의혹이 폭로되는데 대해 《후보직 사퇴》도 불어대고있다.

이에 맞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후보의 형수 육설림을주자로도 방송에 내

보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고 한다.

한편 《이베일리》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은 여야당사이에 《나치스공방》까지 진행되는데 대해 보도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차별, 혐오》 등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대표를 《청년겉스》라고 비난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국민의힘》 대표는 《내가 겉벤스이면 《국

민이힘》은 나치스이고 우리 후보는 히틀러인가.》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 실속이 없는 선심성공작들을 탐발하며 권력쟁탈에 혈안이 되어 돌아가는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정치권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환멸과 혐오감도 더욱 높아가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정치권과 《대통령》선거후보들이 민생악화문제해결은 뒤전에 밀어놓고 《탈모중치로지형》,

《녀성가족부제》, 《사병 월급인상》과 같은것만 광고하며 선거경쟁에 열을 올리는데 대해 《겉메기공약》, 《세금과 나라빚종축을 불러올 장미빛공약》, 《구시대적인 평가공약》이라고 비난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오는 3월에 있게 되는 선거를 《력대공의 진흙탕 난투극》이라고 야유조소하며 《신뢰할만한 인물이 없다.》고 등을 돌려대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